

변함없는 모스크바의 이유 있는 변화

서진영

러시아 전문 여행작가

바야흐로 휴가철, 떠날 생각만으로 설렘 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즐겁지 않다. 매년 살아갈 에너지를 얻어왔던 러시아로 갈 만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사라진 이후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이후 본업은 뒷전인 지 오래. 그 사이 주변국만 맴돌며 조심스레 랜선과 글로 러시아를 접하고 전했다. 하지만 궁금해졌다. 진짜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백문이 불여일견, 순전한 호기심은 나를 모스크바로 떠나게 했다. 6년 만의 방문이라 이번만큼은 낯선 여행자의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 반신반의 중국 경유 여정과 전쟁 중인 나라에 간다는 생각으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듯 기대가 더 앞섰다.

낮설고 요란한 환영식

중국을 거쳐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착륙했다. 그나마 아는 공항이라 마음이 좀 놓였다. 공항 터미널만 총 5개인데, 그중 2개는 팬데믹과 제재 이후 가동을 중단했다. 내가 도착한 곳은 2020년 신규 확장한 북부의 C터미널로 사실상 첫 방문이다. 시설이 좋아도 기다림은 필수.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발 비행기 세 대가 연이어 도착한 탓에 입국심사 공간이 인파로 가득 찼다. 절대다수가 중국인이다. 중러 간 인적 교류가 이리 활발하다니 내심 부럽기도, 한국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아무튼 그들로 인해 서울에서 15시간을 날아 온 내게 닥친 건 무한 대기! 출까지 잘못 서는 바

람에 기약이 없다. 체념하고 기다리다 심사 창구 위 스크린의 ‘푸시킨이 태어난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에서 살짝 안정을 찾았다. 그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라고 하지 않았던가.



6시 정각을 알리는 공항의 대형 스크린 속 시계 (출처: 저자 제공)

1시간여 대기 끝에 입국심사가 끝났다. 짐을 찾으려니 전광판에 내가 타고 온 비행기 편명이 없다. 캐리어는 이미 다음 항공기 도착 수하물에 섞여 컨베이어 벨트를 여러 바퀴 돌고 있던 터였다. 무사 입국에 짐도 잘 왔다고 방심했던 걸까, 공항을 떠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터미널의 그럴듯한 시설에 시선을 빼앗겨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먼저 들려야 할 심카드 매장과 공항철도역 동선이 꼬이고 만 것이



다. 눈 감고도 찾을 만큼 익숙했던 공항이었는데, 새로운 터미널은 모든 게 처음이다. 결국 느지막이 열차를 타고 1시간 가량 달려 모스크바 시내에 도착했다. 거기서 날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세찬 폭우와 강풍! 역시 모스크바는 오랜 벗을 환영하는 방식도 평범하지 않구나. 입국 신고식 제대로 했다.

모스크바는 ‘잘살고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모스크바는 경제 제재가 무색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 서울과 닮은 모습도 있었다. 도시는 깨끗했고, 무엇보다 안전했다. 지난 3월 발생한 테러 이후 공공장소의 철저한 짐 검색이나 신원 확인 등 보안이 강화된 영향도 있겠으나, 늘 주위를 경계하며 다니는 것이 익숙했던 모스크바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낀 건 참 이례적이었다.



지하철역 풍경 (출처: 저자 제공)

1천 3백만 모스크비치의 주요 교통수단 지하철에도 불안함 없었다. 아침저녁 지하철 이용으로 도시에 생동감이 느껴졌는데, 배차간격이 1~2분으로 짧아 피크타임에도 승객이 적당히 붐빌 정도를 유지한다. 게다가 수도권을 잇는 D라인까지 생겨 노선도는 거대 그물망이 되었다. 승객들은 꽤 세련된 모습이다. 여름 무렵이라 옷은 알록달록하고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으며,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귀에는 ‘콩나물’(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듣는다. 이제는 러시아도 대중교통에서 종이책보다 스마트폰 보는 승객이 훨씬 많다.

비교적 최근 모스크바에 새로운 대중교통이 등장했다. 시

민 편의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모스크바강 서북-동남쪽 2개 구간에 수상트램이 운행되고 있다. 최신 시설의 선박은 50석 규모로 작지만 사계절 내내 운치 있게 강을 오간다. 수상트램은 전기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놀랍게도 순수 러시아산이다. 그 외 시내 중심 코스는 관광에 적합한 유람선을 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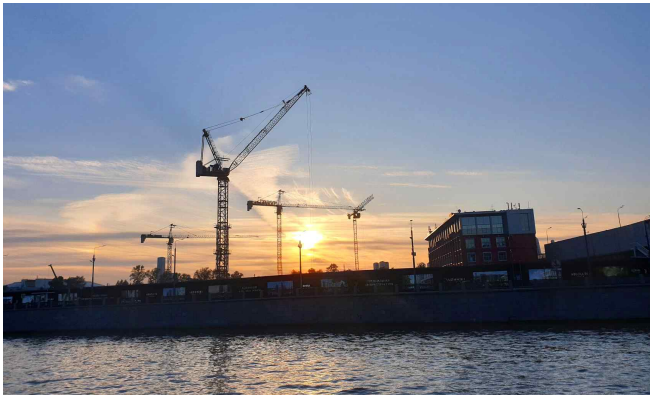
도시 곳곳의 전동킥보드 (출처: 저자 제공)

사람 물결에 휩쓸려 거리로 나왔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내 옆을 스치는 킥보드 행렬에 흠칫 놀라 비켜섰다. 모스크바도 서울처럼 곳곳에 설치된 전동킥보드가 많았고, 이용자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다. 보행 중에는 빠르게 인도를 휘젓고 다니는 킥보드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위험하다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처럼 곳곳에 전동킥보드나 공유 자전거처럼 접근성 높은 이동 수단이 시민들의 두 발을 대신하는 덕분에 도시가 더 활기차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곧 기나긴 겨울이 닥치면 그마저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없을 테니, 탈 수 있을 때 실컷 즐기는 편이 이들에게 더 낫겠다 싶다.

한참을 걷다 모스크바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뭔가 눈에 거슬렸다. 강변 노른자 땅에 들어서면 신축 건물들이 심심치 않게 시야를 가린 탓이다. 대형 크레인과 회색 골조들만 봐도 엄청난 규모다. 옛 건물들 사이로 솟아오르는 현대 건축물과 새로 다져지는 도로 공사가 당장은 미관을 해치는 해도, 모스크바가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다.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관리되는 중앙아 출신 건설 노동자들과 중국이나 인도, 터키 어디 즈음에서



왔을 법한 건설기계와 자재들… 도시는 이들의 도움을 통해 서방의 제재로 생긴 공백을 채워가며 자기만의 왕국을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도시가 새로운 것만 만드는 건 아니었다. 오랜 건축물과 유산들도 지속 관리 중이다. 내가 방문한 시기에도 많은 관광지 건물이 외관 복원과 수리로 천막에 가려 있었다. 성당과 공원, 기념비까지 기존의 것도 하나하나 보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과 정성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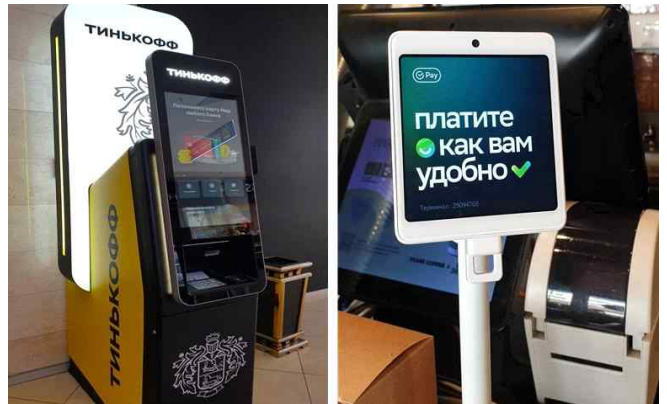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 (출처: 저자 제공)

카드 하나로 열리는 소비 신세계

6년 만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가장 우려한 건 루블 결제였다. 금융 제재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 신용카드를 쓸모없는 플라스틱이 되고 만다. 과거로 회귀라도 하듯 달러나 유로를 들고 현지에서 루블로 환전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현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 잔돈이 없으면 점원이나 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할 게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현지 계좌가 연결된 직불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가 정말 신세계였다.

타뱅크(제재 전 명칭 ‘틴코프’) 카드는 발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카드를 온라인으로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설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원이 찾아와 카드를 전달하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그만큼 카드 이용자와 공급자가 무척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카드는 곳곳에 설치된 기기에서 루블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비번 설정이나 잔액 확인은 모바일로 관리하고, 결제처에 따

라 일정 비율 캐시백 혜택도 있어 쓰면서 버는 기분까지 준다. 카드는 상점과 카페, 박물관 등 어디서나 받는데, QR 코드와 금액이 적힌 화면이나 기기에 카드만 살짝 대면 결제가 된다. 점원에게 실물 카드를 건넬 필요 없는 비접촉 결제가 여기선 일상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개인사업자 휴대전화 번호로 계좌 이체하듯 송금해주기도 한다.



타뱅크 전용 ATM(좌)와 오프라인 매장의 흔한 카드 결제창(우) (출처: 저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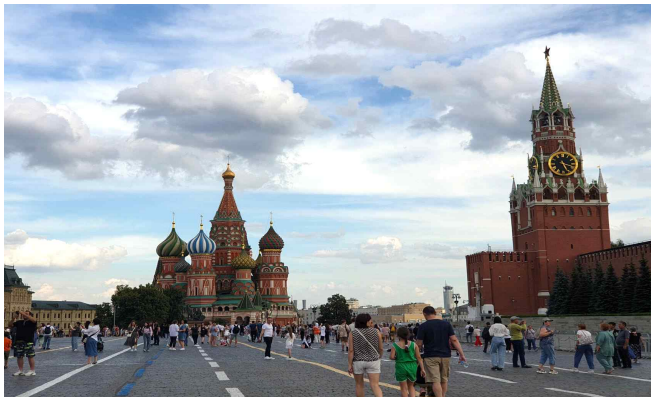
카드만 있으면 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앱에 카드를 등록해 옵션별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음식 배달과 식료품 주문도 가능하다. 한국과 다를 게 없다. 예전에도 해당 서비스가 일부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됐다. 일례로 현지 이커머스 기업 ‘오존’은 프리미엄 고객에게 식료품 1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신속 배달이라니! 이제 배달의 민족은 한국만 지칭하는 게 아니었다. 서울보다 네 배나 넓은 모스크바에서 거리마다 배달통 들고 다니는 배달 기사자 자주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놓친 6년 동안 수도의 물류는 더 촘촘해졌고, 서비스 맛에 길든 모스크바인들의 소비도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결제 시스템 접근과 사용법이 간편해서 지극히 이용자 친화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손쉬운 결제와 빠른 서비스로 모스크바는 한걸 살기 편한 도시로 거듭나 있었다.

‘직항’ 특수와 ‘친절’의 속내

전쟁과 제재 이후 러시아를 여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



을 줄 알았다. 유명 관광지도 평일에 가면 한결 여유로울 거라 판단했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 붉은 광장을 비롯한 주요 장소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가만히 살펴보니 러시아인이 제일 많다. 방학을 앞둔 시기라 가족 단위로 수도 여행을 와서 잔뜩 들떠있는 국내 여행자들이었다. 확실히 러시아 국내 여행은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러시아인 다음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았고, 의외로 히잡 쓴 중동 사람들도 명소마다 꽤 자주 눈에 띄었다. 반면, 한국인은 거의 만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 직항이 다니는 지역 출신들이 이곳 관광지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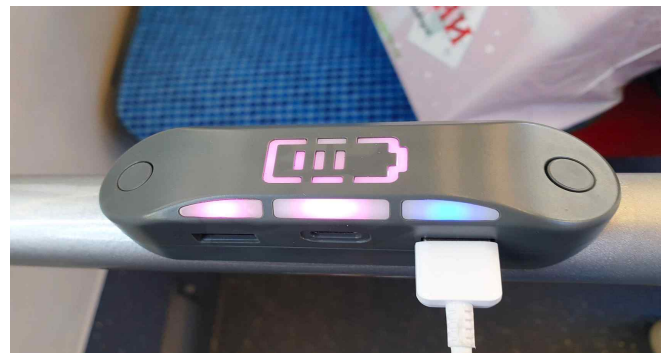
평일 붉은 광장 풍경 (출처: 저자 제공)

이처럼 내수가 활성화되니 러시아인 태도도 좀 달라진 것 같다. 판매자는 왕이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던 이들이 '친절'해졌다. 6년 전에도 친절하긴 했어도 노련하진 못했다. 이제는 서비스가 제법 자연스럽고, 매출 올리려는 수법도 좀 늘었다. 나도 직접 경험했다. 현지 카드를 발급받은 날, 전달 업무를 마친 직원이 생긋 웃으며 내게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 그녀는 가만히 있는 내게 '100루블을 보너스로 드려요!'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자사 심카드를 휴대폰에 끼워주었다. '속도도 빠르죠?' 그녀는 계속 사용을 권했고, 보너스 금액은 1시간 안에 심카드에 450루블을 넣어야 유효하니 어서 충전하란다. 멀쩡한 내 심카드는 엇 그제 샀고, 직불카드는 막 받아 잔액도 '0'인데 충전을 어찌 하라고? 알아서 하겠다며 종용하는 직원을 황급히 돌려보냈

다. 알고 보니 심카드 끼워팔기였다! 나라 불문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의사 표현은 필수다. 그 이후 친절히 다가오는 직원에 관한 경계만 늘었다. 주어진 일 외에 별다른 노력은 없던 러시아인의 생경한 태도에 적응이 영 되지 않았다.

일상의 편의와 전략적 세밀함

모스크바 대중교통과 공중시설 이용에서 놀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지하철과 버스 좌석에 USB 단자가 있다는 점이다.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하루도 못 가는데, 케이블만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충전이 되니 편했다. 또 공중시설 곳곳에서 보조배터리 공유 스테이션도 쉽게 발견된다. 이런 작은 부분만 봐도 모스크바가 모바일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만큼 무엇이든 속속들이 온라인 처리가 일상에 깊이 스며든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배달을 포함해 웬만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설 출입을 위한 입장권도 종이 필요 없다. 모바일 예매 후 PDF 파일을 다운해 현장에서 QR 코드만 제시하면 된다. 단지 좀 불편한 건 한국보다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파 방해로 시내에서는 모바일 GPS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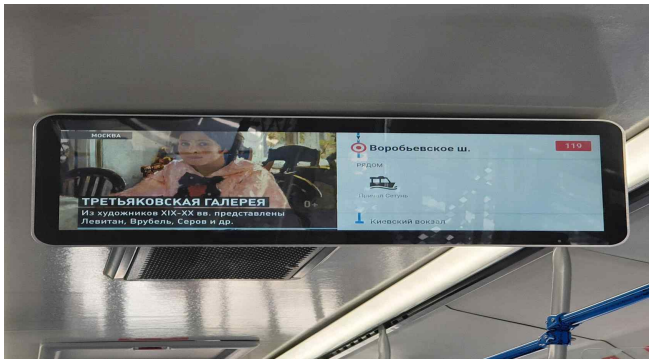


버스 좌석 앞 USB 충전 단자 (출처: 저자 제공)

화장실에서 두 번 놀랐다. 모스크바 공중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무료·유료에 상관없이 대부분 깨끗한 편이었다. 매시간 청소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휴지는 기본으로 채워져 있었고 세면대 수도와 핸드드라이는 모두 센서로 작동했다. 청결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을 꺼리게 되는 길거리 공중화장실도 생각



보다 괜찮았다. 이용에 불편함이나 불쾌감은 전혀 없었다. 유료 화장실은 이용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옛날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지 이런 좋은 변화가 더욱 낯설기만 하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데, 적어도 내가 경험한 모스크바 화장실은 선진국에 가까웠다.



버스 내 천장 스크린에서 소개되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출처: 저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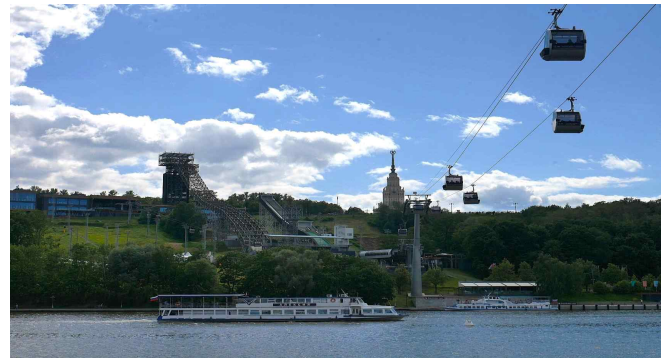


버스정류장의 계약 병사 모집 광고판 (출처: 저자 제공)

또 도시 구석구석에서 애국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보여 신기했다. 아마도 러·우 전쟁 이후 두드러진 분위기겠지만,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침투하고 있어 놀랐다. 공연 말미에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는 거대한 러시아 국기, 열차와 버스 스크린에서 지속해서 노출되는 모스크바의 교통 환경과 문화

역사 자랑, 보행자 산책로에 길게 설치된 게시판 속 국가유공자 사진과 이들의 업적, 버스정류장 대형 광고판을 도배한 특수군사작전 계약 병사 모집 포스터까지. 곳곳에 심어둔 요소 하나하나가 눈에 쏙쏙 들어왔다. 이방인의 시선이라서 유독 눈여겨보게 된 건지도 모르지만, 모스크바 시민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이 절로 들도록 잘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러시아는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단정했었다.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 것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늘 어딘가 허술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 하나까지 감탄하게 되었다. 러시아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껏 안 보여줬을 뿐! 그 반전 매력이 급변하는 세상 속 변함없는 모스크바가 이유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비결이다. 물론 러시아 인조차도 '모스크바는 또 다른 나라'로 인정하는 만큼 앞서 언급한 현상들이 러시아 전체가 아닌 '모스크바 한정'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분명 러시아의 수도는 건재하다.



모스크바강과 참새 언덕의 평화로운 풍경 (출처: 저자 제공)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한 내게 모스크바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되고 말았다. 또다시 갈 핑계를 궁리하고 있는 걸 보면, 나를 제대로 매료시키긴 했다. 옛 친구의 새로운 면모를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는 국내에서 가려진 모습을 올바르게 알리는 내 본업에 충실할 시간이다. 